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기

상상에프지·선해수산과 잇단 투자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청신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산업 기업들의 투자협약이 잇따르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상상에프지(주) 대표 최익수에 이어 28일 (주)선해수산(대표 심의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선해수산은 1999년 법인을 설립하여 20여년간 안주·스낵, 해산물 반찬, 참숯직화구이생선 등을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수산물 전문 가공기업으로 총 1만8,264.2㎡(4,013평) 부지에 73억원을 투입해 50명의 인원을 고용

할 예정이다.

상상에프지(주)는 올해 법인을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수산물·과일·채소·육가공 부문을 사용해 HMR 1만2,881㎡(3,897평) 부지에 56억원을 투자해 60여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투자협약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기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 원료, R&D, 판로, 수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활용해 익산시, 농식품부, 전라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익산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 대표들께 감사하다"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익산시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업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2020학년도 학생리더그룹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필요한 리더십 함양

군산대, 학생리더그룹 캠프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2020학년도 학생리더그룹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

리더십 캠프는 2020학년도 학생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환경변화에 맞춘 학생리더 그룹의 방향설정과 위기상황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함양을 주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기존 학내 행사들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에서, 대비책 마련과 학생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캠프에 임한

가운데, 자치기구별 분임토의와 전문 외부강사 리더십 함양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20학년도 학생리더그룹 리더십 캠프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참석인원을 40명 이내 2회로 나누었고, 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캠프를 주관한 정승우 학생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침체에 따라 학생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리더그룹을 중심으로 한 학생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BTL하수관로 현장 실태조사 완료

1400여곳 이상부위 확인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은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100km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 22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시 BTL하수관로 공동전수조사단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 100km구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지난 22일 완료했다.

시공자료 비교·검토를 통해 공사비 편취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올해 12월까지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 10개항목 137개소 구간이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가 올해 2월 시정기간(2020년 9월 28일)내 시정 조치를 완료할 것을 사업시행사측에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기간이 만료됐다. 시는 앞으로 실시협약에 근거해 시정기간 익일인 2020년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패널터를 부과할 계획으로 2020년 4/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0.1%를 차감한 후 시설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삼학시장, 주민 주도 도시재생 '스타트'

군산시 삼학시장이 최근 대대적인 시장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깨끗한 시장 만들기 등 도시재생을 통한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정비에는 삼학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삼

학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모여 힘을 보탬으로써 시장 곳곳에 쌓인 묵은 먼지를 쓸어내고 방치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등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쇠파하는 삼학시장을 도시재생 협력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자 한

마음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스스로 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삼학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은 한 달 여간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사업발굴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 노력해오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생생직업 체험 교실 개설 군산시, 교육대상자 모집

군산시는 초등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 체험교실'을 개설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드론&VR전문가(11.7~11.8), 과학수사요원(11.14~11.15), 조향사(11.21~11.22), 의료보건 의사(11.28~11.29)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은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v.kr/event)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주 토·일요일 오후2시, 3시 회차 당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시간씩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아동청소년과(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하반기 생생직업체험교실'은 지난 9월 19일 쇼콜라티에 직업체험을 시작으로 해양생태연구원, 수의사(산육사, 캐리커다자이너, 특수분장사 등이 운영돼 총 20회, 240명의 초등학생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기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익산시가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인구 문제 해결에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28만 인구 사수,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지키자는 큰 목표 아래 시민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서명운동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은 QR코드 등을 통해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 메뉴에 접속해 성명과 읍면동 주소, 희망메시지를 기재하면 된다. 오프라인 서명은 익산시 전 부서 및 2개 읍면동 혹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 시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한국창흥기계,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등지

45억원 투자... 24명 고용키로

농기계 전문업체인 한국창흥기계(주)가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9일 조경익 대표, 유희숙 익산시 부시장,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창흥기계(주)는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익산외국인부품소재단지 1만 9,362㎡ 부지에 45억원을 투자해 24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가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창흥기계(주)는 1993년 고려산업기계로 시작하여 '중국 저장창흥기계'에서 투자한 외부 기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트랙터 등 농기계 및 산업용 연동장치인 프로펠러샤프트(propeller shaft, universal joint)

를 제조하는 전문업체이다.

양질의 제품 국산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창흥기계(주)는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제3공단 외투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유희숙 부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국내 지자체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인 익산 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신규투자를 결정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 경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